朝鮮日報
朝刊
本紙朝夕刊十二面

首、陸、海相所信을表明

【東京電話同盟】米內首相은 三日 衆議院本會議에서 齋藤隆夫氏의 質問演說에 對한 政府의所信을 表明하엿는데 그內容은如左하다

昨日 本議場에서 齋藤君의 支那事變處理에關한 質問에 對하여 政府의所信을 闡明하엿는바 일이 重大하므로 이에 다시 政府의所信을 明白히하는바이다 卽 支那事變處理에 關하여는 이미 決定된 國策不動의 方針이잇다 이根本方針에 依하여 確固한 決意下에 手段을다하여 時局解決에 一路邁進할것이다

【東京電話同盟】畑陸相은 三日 衆議院本會議에서 齋藤隆夫氏演說에對한 陸軍의 所信을 다음과가치 表明하엿다 今次事變의 目的은 容共抗日政權을 潰滅시켜 東洋平和를 回復하여 日滿支三國의 善隣友好、共同防共、經濟提携를具現하여서 東亞의 新秩序를確立하여 肇國以來의 國是인八紘一宇의 大理想을 具現하는것이다 이런 意味에서 事變의 根本的 解決이 大事業이라고하는 所以가 잇다

【東京電話同盟】吉田海相은 三日 衆議院本會議에서 齋藤隆夫氏演說에 對한 海軍의 所信을 다음과가치 表明하엿다 (下略)

時局同志會 徹底히責任追窮

【東京電話同盟】時局同志會에서는 三日 齋藤氏의 失言問題에關하여 代議士會를 열고 協議한 結果 具體的 態度로서는 同會에서 决定에 努하여 齋藤氏와 民政黨의 責任을 追窮하기로 하엿다

齋藤氏失言問題擴大
速記錄後半削除와 懲罰委員會廻附宣言
小山議長、昨日衆院本會議서

【東京電話同盟】三日 衆議院 本會議는 齋藤隆夫氏의 質問演說에 依하여 惹起된 紛擾때문에 豫定보다 八時間이나늣게 午後九時四分에 어르러開會되엇다 劈頭小山議長으로부터 前日의齋藤氏質問演說에關하여 齋藤君演說에關하여는 當時議長은 어룰不穩當하다고 認定하고 그速記錄의後半을 削除하기로하엿는데 이는內務省으로부터의 禁止事項이므로 議長이 適宜處置하는것이다 齋藤君이한 演說內容은 時局에 비추어 자못遺憾된點이잇다고 認定되고 그影響이 重大하므로써 어에齋藤君을 懲罰委員會에 부친다 고 宣言하엿는데 社大及 時局同志會는「議長의責任은 어떠케할터인가」고 怒號하여 場內는 자못喧騷하엿다 議長은 곳米內首相에게 發言을許하여 別項과가튼 政府의所信을 闡明하고 畑陸相, 吉田海相이順次로 登壇하여 各各所信을闡明하엿다 이리하여 紛糾를거듭한 齋藤氏의失言問題도 同氏를 懲罰에附하기로하고 九時十二分 散會하엿다(寫眞은 齋藤氏)

小山議長釋明內容

【東京電話同盟】三日衆議院本會議에서의 齋藤隆夫氏 失言問題에對한 小山議長의 釋明及懲罰宣言은 다음과갓다

此際一言하려고한다 齋藤君의 昨日演說에 對하여는 當時議長은 그發言의 一部에 對하여 取消勸告를 하엿스나 取消하게까지 이르지못하엿다 議長으로서는 愼重을期하기爲하여 速記錄을調査하고 處斷하려고 생각하고 散會後速記錄을 調査하고 宣言하엿는데 社大及 時局同志會는…

各派交涉會經過

【東京電話同盟】紛糾의 衆議院은 三日午後 八時二十五分三次議長室에서 各派交涉會를열고 齋藤氏問題를 中心으로하는 議事順序에對하여 協議한 結果 다음가치決定하엿다

一、三日本會議劈頭 小山議長으로부터 昨日齋藤氏가한 演說速記錄의 一部를 削除한 點에 對하여 釋明하고、議場의 同意를求한後 齋藤氏를 懲罰에 附하는旨宣言할것

一、다음에 米內首相 畑陸相 吉田海相順序로發言 政府의所信을 表明할것

一、齋藤氏一身上의 辯明은不許하고 大口喜六氏의 國務大臣에 對한質問演說은 五日本會議劈頭에할것

町田總裁鎭撫에努力

【東京電話同盟】齋藤氏의 失言問題에關하여 民政 政友의三幹事長은 小山議長의 招請에依하여 午後六時부터 院內議長室에 參集하엿던바 席上小山議長은 齋藤氏를議長의職權으로써 懲罰에 부치는것은 保留한다고 言明하엿스므로 民政黨은 卽時院內에서 幹部會를열고 內崎幹事長으로부터 小山議長과 三幹事長의 會見顚末을報告하고 意見交換을 하엿는데 그結果 議長의職權에依한 懲罰을 할수박게업다는데 意見이一致되어 卽時黨內에 齋藤氏懲罰에對하여 强硬히反對하는 議員의 慰留鎭撫에努力하기로決定하고 午後七時五十分부터 秘密代議士會를열고 右幹部會의結果를 報告하여 그承認을 求하엿던바 會는 議論沸騰하엿스나 町田總裁…

民政黨代議士會
議長職權에依한懲罰反對

【東京電話同盟】民政黨은 齋藤隆夫氏의 失言問題發生後 措置에 關하여 三日午後三時半부터 院內總裁室에서 緊急秘密代議士會를 열고 먼저 高橋總務로부터 各派交涉會의 經過와밋結果를 報告하엿는데 工藤鐵男氏 田村秀吉氏等은 齋藤隆夫氏의 過去三十六年間 政治生活中 我黨政에 盡瘁한功勞가 偉大한것을 稱揚하여 議長의 職權에 依하여 齋藤氏를懲罰에 부친다는 我黨同志로서 承認할수업다는 理由로 强硬한 反對意見을 述하여 代議士會는 非常한 …의 意見을 述하여 代議士會는 … 依하여 結局總裁에 一任하기로 되엇다 그리고 社大、政友中島派、時局同志會、第一議員俱樂部等 四派提案인 議長不信任決議案緊急上程의 件은 五日의 各派交涉會에서 協議하기로되엇다

政府法案一件
衆議院에提出

【東京電話同盟】政府는三日左의 法律案을 衆議院에 提出하엿다
一、朝鮮事業公債法改正法律案

小山議長不信任案
四派共同提案으로

【東京電話同盟】社會大衆黨、政友中島派、時局同志會、第一議員俱樂部에서는 四派共同提案으로 三日小山議長不信任案을 衆議院事務局에 提出하엿는데 그提案理由는 다음과갓다

一、既往三日間의 議場狀況을보매 連日本會議의 開會時間이 느젓는데 이는 議長의 措置가 適宜하지못하엿슴에 依한것이다

一、昨二日 議員 齋藤隆夫氏의 質問演說은 前後二時間에 亘하엿슴에도 不拘하고 議長은 何等 制止 又는 注意를 주지안흔것은 議長의 失手이다

一、速記錄의 削除는 議長의職權으로 할수잇는것이나 이는 字句의 訂正削除、又는 十行 二十行削除의 削除에 그칠것으로 二時間에 亘한 演說의 三分之二를 削除함과 가튼 것은 前例에 부처야 할것이 다 이點에잇서서 越權行爲라고 認定한다

一、小山議長의 態度及 齋藤氏의 演說에 關한 議長의 善後處置에 對하여 質問이잇고 時하여 一、小山議長은 齋藤氏의 演說中 不穩當한것이잇는 演說에 對하여「中止」「制止」又는「禁止」等 適宜한 宣言을 하지안헛는가

一、二日本會議散會後 왜 速記錄을 一般시키지안헛는가 라는 趣旨의 詰問的質問이 잇섯스므로 小山議長은 大要다음과가치 答辯하엿다

一、齋藤氏의 演說에 對하여 中止「制止」又는「禁止」를하지안흔것은 同氏의 演說이 當初의 代表이엇기때문에 關長的으로 民政黨幹部로부터 通하여 한것이다

一、速記錄으로부터 削除한것은 禁止事項에 抵觸되므로 削除 한것이다

一、齋藤氏의 處分에 對하여는 議長으로서 熟慮한후에 決意하엿다

秩父宮殿下
諏訪御到着

【上諏訪電話同盟】明治神宮冬季大會스케트競技會臨의 秩父宮殿下께서는 三日午前八時三十九分富士見驛에서 前田事務官을 데리시고 三日午前八時三十九分富田長野縣知事、友米大會競技部長、大會役員、選手等의 奉迎裡에 上諏訪驛에 御到着하시어 곳自動車로 沿道의 地方各團體等의 奉迎裡에 御宿泊所諏訪湖畔片倉館에 御着하시엇는데 殿下께서는 四日午前八時十五分御宿泊所 片倉館을 御出發、御諏訪神社에 御參拜하신後 同九時二十分 諏訪會場에 御着、各競技에 台臨하신後 午後二時五十分 會場을御出發 諏訪湖에 向하시어 同所에서 北海道氷上聯盟理事 久保信氏(元明大피규어選手)의 御說明으로 스케트를 라시고 同四時二十分 上諏訪驛發列車로 同時三十分 諏訪湖御發 御歸京하실 御豫定이시라고 拜承된다

李鍵公妃殿下
慰問袋下賜

【東京電話同盟】李鍵公妃誠子殿下께서는 大陸에서 活躍하는 皇軍將兵의 勞苦를 軫念하시사 恒例에 依하여 慰問袋一千個를 下賜하셧스므로 李鍵公御附武官事務官은 中佐는 三日午後陸軍省을 訪問하여 이를 傳達하여 十個를 下賜하셧스므로 李鍵公御附武官은 … 陸軍省을 訪問하여 이를 傳達하엿는데 妃殿下의 고마우신 御心에 北支派遣軍에게 一回는 感激하여 곳 傳達하엿다 (原文 一部 判讀不能)

南寧附近決戰으로
敵冬季攻勢完全挫折
大本營陸軍部報道部發表

【東京電話同盟】南寧附近의一大決戰에서 蔣介石의 所謂冬季攻勢가 完全히 潰滅된것을 機會로 大本營陸軍部에서는 三日午後六時 다음가튼 報道部長談을 發表하엿다

大本營陸軍部報道部長談＝蔣介石의 所謂 冬季攻勢는 今番南寧附近의 一大決戰에 依하여 完全히 最後를 告하엿다 由來南寧은 援蔣補給路上의 要衝이므로 그失陷에依하여 重慶政府는 精神上 또는 物質上 無限한 打擊을입게되는同時에 新中央政府樹立工作의 進展과 아울러 支那國民의 和平機運이 一層더 高潮하게되엇슬뿐만아니라 그 所謂 冬季攻勢는 亂方面에서도 皇軍의 擊滅을바다 조금만한 失地도 回復지못하엿스므로 蔣介石은 昨年十二月以來 예비어나 南寧奪還의 宣傳을 中外에 發表하여 局面을 糊塗하려고하엿는데 마침내 悲壯한 決意로서 中央軍其他二十餘個師(不正確한것을 加하면 四十餘個師)의 大兵力을 集結하여 支那軍中第一流의 戰略家라고하는 陳誠、白崇禧等을 命하여 이를 指揮케하고 南寧을 確保하려고한것이다 皇軍은 그同時에 一部兵力을 그東北及西北方山岳地帶에 보내어 敵을 誘致키에 努力하엿던바 敵主力은 南寧東北方九塘附近의 我兵力에 僅少함을 認하여 이기고 陸續한 山地作戰의 術中에 빠지게 되어 敵主力을 誘致하여 數量的 打擊을 加하엿다 이동안 崑崙關附近의 我部隊는 數十倍나되는 大敵의 包圍를 바다고 中村正雄少將以下 貴重한 犧牲者를 내엇스나 敢然 不絶히 反擊을 加하여 悉히 完全한 包圍 殲滅을 完成하엿다 이 寶陽平地에 進出하여 敵의背後에 迫하고 大迂回運動을 일으켜 疾風과가치 敵을 撃破하고 果然 皇軍은 今冬季攻勢는 이에 東方으로一方 敵의 大兵力을 殲滅하여 … 冬季攻勢는 告하엿다 이에까지 除地업슬 만치 決定되엇다

四國意見不一致로
빨칸協商國會議難關에逢着
羅外相、獨蘇接近을示唆

【베오그라드二日發同盟】빨칸協商四個國會議의 第一日結果에 關하여 權威잇는 側의 觀測한바에依하면 會議는 빨칸諸國의 平和維持方式에關하여 各國代表間의 論議가 續出되엇는데 結局左記諸項에關하여 暫定的 意見一致를 보앗다고傳한다

一、빨칸協商의 現狀維持 卽土耳其、유고・슬라비아、希臘三國은 羅馬尼亞가 蘇聯의 侵略을 바들境遇自動的으로 羅馬尼亞를 救援하라는 羅國案을 拒否하여 現狀에 何等의 改變을 加치 안홀것이라 主張하고 葡牙利와 羅國에 對하여 領土的 要求를 主張하며 유고・슬라비아協定을 締結할自由를가질것

一、빨칸協商國은 會議終了後 共同콤무니케를 發表하여 武力을쓰지안코 友誼的方法에依하여 諸懸案을 解決하고

섯다는 希望인것을 强調할것 그리고 第三項에關하여는 羅國이 土耳其、유고・슬라비아、希臘三國이 羅馬尼亞에 對하여 葡牙利及 勃牙利의 領土要求에 對하여 共同保障을 拒否하고 勃牙利兩國에 對하여 領土的 要求를 友誼的으로 速決할수잇스면 빨칸의 平和는 當然히 保障될 것이라는 見解를 가지고 잇다는것을 알게하여 주는것이다 이리하여 會議는 유고、希臘、土耳其三國과 羅國의 主張사이에 多大한 隔隔이 잇는模樣인데 外交消息通에서는 今次協商國會議는 빨칸協商國相互間의 利害가 錯綜하여 잇는 實狀에 鑑하여 빨칸諸國의 中立強化를 期待하는 것은 無理한일이라고 會議의 成果를 悲觀하고잇다

【베오그라드二日發同盟】빨칸協商國會議는 第一日의 會合에서 벌서 유고、希臘、土耳其三國과 羅馬尼亞와의 主張에 多大한 隔隔이 잇는것이 判明되어 會議는 難關에 逢着한 模樣인데 羅國代表의 態度는 蘇聯과 不可侵條約을 締結할 수 박게 업다고 言明하엿다고 한다 羅國代表의 이가튼 發言은 다른 三國代表에 多大한 衝擊을 주엇고 會議終了後 各國代表는 이點에 關하여는 一切沈默을 지키고잇다

五原은貿易上要地

【包頭三日發同盟】皇軍의 占領에關한 五原은 包頭로부터 西北百五十키로 黃河北岸의 所謂河套地回의 中心地이며 土地肥沃하고 그東北우라山과함께古來蒙古貿易의 要地이다 住民의大部分은 漢人으로 元來蒙古自治政府의 管轄에 屬하는 곳인데 傷

重慶에反戰運動
抗戰政策反對를宣言

【上海三日發同盟】和平救國을 標榜하는 汪精衛氏一派의 新中央政府樹立이 目睫에 近迫하고잇는 이때 某側에 達한 情報에依하면 重慶에서 支那民衆이 지난 一月二十七日 重慶에서 中華民衆反戰大同盟이라는 이름下에 「抗戰反對」를 呼號하고 宣言文을 各地에 配布하는 等 重慶政府機關에 보내 事實에 暴露되어 注目을 끌고 잇다 卽 滿洲되는 敗戰과 物資缺乏에 疲弊된 重慶民衆은 汪精衛氏의 新中央政府樹立에 刺戟되어 一月廿七日 戰爭反對宣言을하게된것으로 右同盟의 멤버 四十名은 廿八日 戰爭映畫「木蘭從軍」을 上映中인 映畫館을 襲擊 放火하엿다 重慶側은 唐慌하여 이를 共産黨의 示威에 依한것이라고하여 取締에 狂奔하고잇는데 右同盟이 各地에 發送한 宣言文은 다음과 갓다

中國政府는 民族復興의 美名에 숨어 歐米援助下에 抗戰政策을 堅持하여 最後의 勝利를 宣傳하엿다 그러나 抗日은 僅少人數의 私利私慾을 채우기爲함인 民衆을 重要한 犧牲으로 利用 利用 시키지는 못하엿다 現在抗日을 主張하는者는

모든 純粹한 愛國者가 아니다 我等은 目前의 苦境으로부터 離脫하야 自己들 救濟하기爲하여 다음과 가튼 要求를 提出한다

一、抗戰政策에 絶對反對
二、速히 和平을回復하라
三、貪官汚吏가 獲得한 財產을 沒收하라
四、抗戰에 依하여 民衆이 바든 損害賠償을 하라

中村中將戰死

【東京電話同盟】陸軍省二月三日午後四時發表＝陸軍中將中村正雄(戰死當時는 少將)은 南寧東北方地區에서 奮戰中 昨年十二月廿五日 九塘附近에서 壯烈한 戰死를 하엿다

新設四課의 事務分掌

戰時體制下의 半島行政機構를 整備하여 總督府內에 新設된 糧政、食糧調査、經濟警察、物價調整의 四課官制는 三日公布 即日實施되엇스므로 總督府에서는 이에 伴한 新設課의 事務分掌規程을 如左히 公布하는 同時에 從來의 農林局米穀課는 廢止되엇다

▲物價調整課
價格等調整에 關한 事項

▲糧政課
一、米穀政策樹立에 關한 事項
二、米穀及 雜穀統制에 關한 事項
三、米穀及雜穀需給 取引及價格에 關한 事項
四、米穀의 輸出入許可와 粟、高粱、黍、小麥及小麥粉輸入制限에 關한 事項
五、產米改良增殖에 關한 事項
六、穀物檢查所에 關한 事項
七、農業倉庫에 關한 事項

▲食糧調査課
一、米穀及 雜穀의 生產費調查에 關한 事項
二、米穀及雜穀의 生產高調查에 關한 事項
三、米穀及雜穀의 現在高調查에 關한 事項
四、米穀及雜穀의 移動調查에 關한 事項

▲經濟警察課
經濟警察에 關한 事項

總督府人事異動

總督府의 人事異動은 審議室首席事務官의 補充發令、食糧調查、糧政、物價調整、經濟警察의 四課初代課長의 任命等을 包含하야 三日附로 正式發令되엇다

命總督府會計課長 高尾甚造
專賣局鹽蔘課長 厚地法人
命平北理事官 平北警察部長 郡用信
命遞信局經濟課長(二等) 服部伊勢松
命殖產局事務官(五等) 總督府事務官 伯田明
命忠北道事務官 忠北道事務官 足立正秋
命農林局農務課長(二等) 黑田書記官
命警務局事務官(七等) 淺井泰治
命總督府土木事務官 加納富夫
命財務局事務官(六等) 全南道理事官 田原實
命內務局事務官(七等) 企畫部事務官 吉本强
命殖產局理事官(七等) 黃海警察部長 一杉勝平
命專賣局鹽蔘課長(三等) 光州稅務監督局事務官 上野武雄
命忠南北道警察部長(四等) 警務局事務官 坂本晃
命黃海道警察部長(五等) 忠南牙山郡守 晋吳義
命平安北道理事官(六等) 南洋廳事務官 齋藤直太郎
命光州稅務監督局稅務部長(四等) 總督府事務官 平田治人
命忠淸北道理事官(七等) 總督府專賣局書記 太田吾朗
命咸鏡南道理事官(七等)
任總督府道警視(七等) 命平安南道在勤 中島米太
總督府慶尙北道警視部
任總督府道警視(七等) 命慶尙北道在勤
命京畿道在勤 石川宗四郎
同 正岡善一
補京城西大門警察署長 總督府 坂奇守之助
任總督府理事官(七等) 命殖產局勤務 瀨戶恭雄
命殖產局勤務 總督府營林署 松永茂久
任總督府山林事務官(七等) 命農林局勤務
總督府郡守 洪憲枸
任總督府道理事官(六等) 命平安南道在勤
同 白鶴洲
任總督府道事官(六等) 命慶尙北道在勤
同 宮野寬
任總督府道理事官(七等) 命京畿道在勤
總督府道理事官 岡野定乙吉
命京畿道在勤 總督府京畿道屬 小野殿吉
任總督府郡守(七等) 命平安南道江西郡在勤 下任圭
任總督府郡守(七等) 命京畿道始興郡在勤 康明玉
命慶尙北道軍威郡在勤 總督府咸鏡北道屬
任總督府道理事官(七等) 命京畿道在勤 總督府京畿道屬 齋藤粗七
朝鮮中央賃金委員會委員被仰付 陸軍大佐 高間完
依願本免官 總督府道警視 上野盛一
命平安北道警察部 總督府道警視(七等) 澤永年
命忠淸南道牙山郡守 總督府道警部 廣下良顯
命全羅南道理事官(七等) 中樞院書記官 小坂弘
命企畫部事務官 企畫部第一課長 丹下郁太郎
命總督官房會計課長 總督府事務官 柴原五郎
命殖產局物價調整課長 遞信事務官 角永淸
命企畫部第一課長 遞信事務官 下飯坂元
命農林局糧政課長 (米穀課長) 吉池四郎
命農林局食糧調査課長 (農林局技師) 丹下郁太郎
命企畫部事務官 總督府事務官 本多武夫
命平安北道警察部長 (忠北警察部長) 安部明
命京畿道警察部 江原道警察部長
命遞信局事務官 光州稅務監督局稅務部長 鄭民朝
命光州稅務監督局事務官 總督府山林事務官
任殖產局水產課林局理事官(七等) 牟田亮平
總督府技手 秋山愼次
命殖產局技師 總督府技師 中塚秀雄
命農林局技師(三等) 全南道產業課長 小野寺二郎
總督府技師
命農林局技師(四等) 忠淸南道農務課長 上浦義鑑
命農林局技師(五等) 江原道農務課長 尾崎治
總督府穀物檢査所技師 黑岩滋
命農林局技師(六等) 總督府技師 西卓
命全羅南道農務課長(四等) 總督府技師 美代淸彥
命全羅北道農事試驗場技師 中村總七郎
命江原道農務課長(五等) 總督府穀物檢査所技師 堀山寅太
總督府慶尙南道農務課長 坂口國勝
命忠淸南道農務課長 堤淸治
命慶尙南道在勤 總督府道技師(七等) 畑久兵衛
命黃海道技師 總督府技手 高田枉造
任總督府道警視(七等) 命咸鏡南道在勤 加藤誠

人事·集會

▲李源甫氏(總督府社會教育課長) 總督府扶餘靑年修鍊所에서 別世
▲三島氏 二氏 (總督府中堅靑年修鍊所所長) 二日午後二時五十分京城驛發扶餘에出張
▲金潤淳氏(全鮮醫藥業主) 三日午前田殿 北支方面에出張

斯界의最高權威
醫學博士園田先生은
天眞熊膽丸의效果에對하야 다음과가티證明하얏습니다

有効證明書
一、天眞熊膽丸
(判讀不能)
醫學博士 園田○朗
天眞堂藥房御中

病을治療하라거든!
效力잇는名藥을選擇하시요!!

天眞熊膽丸의 四大効果

第一의效果 服藥後二三時間가지나면 그藥効는胃腸에吸收되어全身에循環하야 根本的으로回生시키고 矯正시키며 ……
第二의效果 服藥後胃腸에吸收되어 ……
第三의效果 熊膽을中心으로하고其他七大高貴藥을細密한比量에依하야 ……
第四의效果 熊膽의迅速果敢한發散力에依하야 過幾時間에藥效가胃腸으로부터血管中으로 ……

다음과가튼 症勢가잇는분은 速히 天眞熊膽丸을잡수시요
一、心臟이衰弱하야숨결이밧븐사람
一、長壽못할·徵兆가잇는분
一、肺病인가하고恒常걱정하는분
一、元氣不足으로·感氣잘걸니시는분
一、滯症·積症으로苦痛하는분
一、酒毒·體毒·梅毒·淋毒症이잇는분
一、頭痛又는常習便秘症이甚한분
一、慢性胃腸病으로苦痛하는분
一、瘀血症으로座而待死하는분
其他產前產後의產母에게强壯劑로使用하면더욱神速한効力이잇습니다

全國有名藥房에서販賣함
近處藥房에、업거든、直接本舖로注文하시요!

買藥時의注意
本劑의五十七年間信用과名聲을利用하야 類似品을조흔藥이라고推奬하는藥房과 行商人이잇사오니 買藥時에는 반드시藥包紙右便에、赤色으로 印刷한明治十六年官許라는 文字에注意하시오

便利한注文方法
藥代金을 全部振替口座大阪七八九五九番으로보내시면送料도 안물고 藥도郵便配達夫가 直接貴宅에까지 가저다드림니다
萬一危急한病者가 有할時는 普通電報又는 電報爲替로送金하시면 藥은곳貴宅까지 配達하도록 緊急發送하겟나이다
振替送金方法은 郵便局에가서무르시면 親切히잘가르켜줌니다

藥價 一劑 (判讀不能)

大阪市十三東之町二ノ二〇
本舖 天眞堂藥房
電話北六〇二六番 振替大阪七八九五九番

薄謝進呈 天眞熊膽丸의 効能에關한體驗을片葉式으로記載하야 적어보내면 薄謝를進呈하겟나이다

仙人秘方 家傳靈藥
天眞
熊膽丸

昨年覇者를제치고 同德과京保優勝

三種目記錄更新코圓滿終幕

盛況이룬 女子氷上

신춘스포-츠계에 빗나는 기록을 남긴 본사주최의 제오회 전조선여자빙상경기대회는 삼일오후한시부터 청량리링크에서 열린바 수천관중이 운집한 가운데 열전에 열전을 거듭하더니 인끼와 흥분속에 일천오백미-터-스에서 동덕고녀(同德高女)는 작년의 우승교 경보(京保)를 간신히 이겨서 동덕회에서 첫승의 개가(凱歌)를 올리엇다 그리고 일반부에는 이화전(梨專)이 패하고 경성보육(京城保育)이 우승하엿스며 이백오십미-터-스의 고녀부에는 동덕의 김정희(金貞熙)양이 단연히 우승을 따지하엿는데 사천오백미-터-스까지가 대회기록을 깨트린 것이 일반부에는 이천의 [illegible] 양이 우승하엿스며 일천오백미-터-스 고녀부에는 동덕의 등천(藤川)양이 일반부에는 이전의 한정순양이 각각우승하여 일반부에는 경보의 선우은실(鮮于恩實)양이 이것고 일반부에는 [illegible] 패권을 남기엇다 이리하여 이날의 출전선수들은 지난해보다 운동정신과 기술이 향상되엇스며 세계적선수를 배출할 긔운이 보이엇스며 금후의 대회기록을 내이는데 [illegible]

다단수회를 거듭한다음 대회부회장 이훈구(李勳求)씨로부터 입상선수에게 우승기와 우승배또는 상품을 수여하니 때는오후네시 기념할대회의막은 이러케원만하게 다치엇다

女子氷上大會畫報上…은 授賞式, 各種目優勝者 右로부터 韓貞順, 李善?, 藤川, 中村讚, 韓?光, 鮮于恩實, 京城保育, 同德高女

千五百米

◇高女部(오픈 코-스)

1、藤川幸子(同德) 三分三十一秒(以上本大會新記錄)
2、金福姬(同德) 三分卅三秒二
3、中村富子(淑明) 三分三十三秒四
4、高敬實(同德) 三分五十一秒四

◇一般部(오픈 코-스)

1、韓貞順(梨專) 三分四十二秒 入
2、鮮于恩實(京保) 四分二十九秒十

千六百米繼走

◇高女部

1、同德高(金貞姬、朴順禮、黃[illegible])
2、淑明高(金[illegible]、[illegible])
3、槿花(藤川、村上、山本、[illegible])

◇一般部

1、京保(金光順、金順玉、鮮于恩實、[illegible]) 三分四十八秒五
2、梨專(韓貞順、[illegible]) 四分二十八秒八
3、[illegible] 四分三十一秒
4、[illegible] 四分九秒五

明治神宮氷上大會 第二日

三千米레-스 朴潤哲君一着

金聖奎君은第二着

【東京電話同盟】明治神宮氷上第二日 三千米 오픈레-스는 前日의 競技를繼續하야 九名사이에 [illegible] 朴潤哲君이 完全히 東京選手를누루고 [illegible] 三位까지 日本參考記錄을 내이엇다 男子스피-드成績은 東京二十二點으로 [illegible] 十六、五朝鮮은 十七、五關東三 中部一點

▲女子一千米決勝
1、江島八重子(滿洲) 一分五?秒八
2、[illegible](滿洲) 一分五?秒六
3、坂本[illegible](北海道) 一分?秒一
(本年度最高記錄)

▲男子三千米決勝(오픈 코-스)
1、朴潤哲(朝鮮) 五分一秒
2、南洞[illegible](東京) 五分三秒
3、金聖奎(朝鮮) 五分三秒五
4、張[illegible](關東)
5、李[illegible](朝鮮)
6、山下[illegible](東京)
(以上日本參考新記錄)

▲氷上하키-決勝 東京(明大)對關東州 [illegible]

【得點】滿洲七 東京六 關東三

日曜講話

◇中央基督敎靑年會 午後二時半 宗敎는[illegible] 金光宇 氏
◇昭和第一禮拜堂 午前十一時 李[illegible] 氏
◇[illegible] 午後七時 [illegible]
◇行橋敎會 午前十一時 [illegible]
◇中央禮拜堂 午前十一時 沈[illegible] 氏
◇三淸町敎會 午前十一時 金[illegible] 氏
◇仁川[illegible] 午後七時 [illegible]
今日 天氣 晴一時雪

行商을雇用 綿布不正賣買

西署管內에綿布業者跋扈

서대문경찰서에서는 이지막 면포(綿布)의 배급이 모자라는 기회를 타서 ... 통제가격을 무시하고 판매하는 ... 조사를 하여 ... 다수의 행상을 고용하여 ... 면포를 ... 팔고잇다는 사실을 탐지하고 ... 엄중히 취체하기로 되엇다 [illegible]

映畵「安全地帶」

부내 ... 경성 ... 영화 「안전지대」를 ... [illegible]

旱害救濟義捐

(社協接受分)

▲二千三十二圓四十四錢 山形縣知事 ▲百三十四圓九十五錢 [illegible] ▲百十四圓三十九錢 京城高等工業學校 ▲百圓 [illegible] 太敎香町居住朝鮮人親睦會 ▲三十圓 [illegible] ▲二十一圓六十五錢 水戶保護觀察所 ... 東京市大森區 [illegible] ▲七十圓 [illegible] ▲百圓 [illegible] ▲五十圓 京城日報社 ... ▲一萬二百七十二圓四十五錢 朝鮮社會事業協會黃海道支部 ▲二萬七千四百三十五圓四十八錢 朝鮮社會事業協會全羅南道支部 ▲累計六十七萬七千三百十六圓二十七錢也 [illegible]

煙氣에運轉手窒息

貨車、客車正面衝突

滿浦線에서朝鮮初有의珍事故

【警務局着電】노픈고개에잇는 긴굴속으로 지나가던 화물열차의 기관수 세명이 연기를 마시고 질식하엿다는 조선서 처음보는 철도사고가 잇섯다 이일오후 여섯시오십분에 만포역에서 평양역으로가던 림시화물 제유백오십열차(滿浦驛)로부터 만포역으로 ... 외귀역(外貴驛)과 시중역(時中驛)사이에 잇는 ... 서 비행기 ... 굴 ... 기관수와 조수 세명이 ... 질식하엿다 ... 그래서 외귀역에서 ... [illegible]

沐浴湯에서急死

부내 신정 ... 목욕탕에서 ... 심장마비로 일어난 것이라고 판명되엇다 [illegible]

創氏事務所

京城府에開設

경성부에서는 드디어 오는 십일일 기원절부터 시행되는 조선인 창씨에 대하야 ... 창씨설정에 대한 ... 부청안에다 창씨사무소를 두어 지도장려하기로되엇다 [illegible]

성냥製造配給令

五日公布、十日實施

【東京電話同盟】국내에서 성냥의생산을 확보하기위하여 지난이일 내각에서 국내성냥제조에 대해 일정한 생산할당을 하고 성냥의 원료 배급을 ... 제조업자에게 ... 성냥제조배급통제규칙 ... 오일공포하고 십일부터 시행하리라 한다 [illegible]

地下室아파-트에 染病이"爆發"

一時에四名發生騷動

부내의주교정(舟橋町)이정목 염천교(鹽川橋)에 잇는 대전(大田)아파-트 지하실에는 ... 일 오후부터 네사람이 구토와 설사를 하므로 세부탄소병원 의사를 불러 진찰한결과 전염병 환자로 ... [illegible]

陽德에山火

【陽德】지난삼십일오전십일시경부터 양덕면지수리(陽德面知水里) ... 산에서 불이 일어나 ... [illegible]

鐵道局員酷寒地慰問

철도국의 혹한지위문사는 칠일용산을떠나 ... 평원(平元)선 ... 만포선 ... 백무(白茂)선 ... 대화전(大和田)씨 ... 가기로되엇다

一"夜"凍死"三百"

酷寒에떠는上海消息

【上海三日發同盟】최근상해의 겨울은 근년에드믄 추위로 이틀날부터 종일토록 눈이퍼부엇고 ... 사흘째 ... 공동(共同)묘지 ... 일동안에 시체가 삼백이나 되엇다 [illegible]

僵屍三件

[illegible]

安城强盜는虛僞

지난달삼십일밤 경기도 안성 ... 강도가 침입하여 ... 안성경찰서에서 조사한 결과 ... 허위신고이고 ... 판명되엇다 [illegible]

學識업다고虐待

[illegible]

牛痘맞지안흔府民

아직도十萬餘名

今日까지種痘施行、빠지지말라

[illegible]

五百經濟警察配給

物價調整、抑壓本格化

新設四課、五日부터遂開店

사변하의 저물가정책(低物價政策) 물자절약확보 물자배급원활 식량대책등 가장중요한 전시경제국책을 수행함에 만전을기하고자 총독부에서는 총독부이하 각도에 경제경찰과(經警課)를 신설하는 동시에 총독부와 경기도 경상남북도 평남도등 사도에는 물가조정과(物價調整課)를 신설하며 현농림국 미곡과(米穀課)를 분리하여 양정과(糧政課)와 식량조사과(食糧調査課)로 개설또는신설하기로 결정한후 제이예비금 지출로써 그예산을어더가지고 즉시 이에대한 관제개정을 내각에 수속중이든바 지난삼십일각의(閣議)에서 무사통과되엇스므로 마침내 삼일오후 총독부로부터 정식공포되어서 오는오일부터 각각그기관을 개설하기로되어다 이와가치 경제경찰의진용 물가통제의기관 식량대책의본영이 일제히 확충강화되엇스니 금후 국민생활을위하여 또는 전시경제를 의하여 실로 기대되는바크다

三橋警務局長談

전시하의 경제경찰기구를 확충강화하고자 총독부에는 경무국안에 경제경찰과를 신설하고 각도경제경찰과를 지도통제하며 각도(경기도는기설)에는 경찰부안에 경제경찰과를 신설하기로 결정되엇슴은 이미보도한바어니와 이에대한 관제가 각의(閣議)를 거처서 마침내 삼일오후 총독부관보로 공포되엇스므로 오늘부터는 총독부를 비롯하여 각도경제경찰과의 신설을 보게되엇다 이에대하여 삼교경무국장(三橋警務局長)은 삼일오후 다음과가치 담화를발표한바잇섯다

소화십삼년십월 조선에 경제경찰제도가 창설되어 총독부경무과에는 경제경찰계를 두엇고 지방에는 경시이하 오륙명을배치하엿섯다 경기도에는 경제경찰과 기타각도에는 보안과에 경제경찰계를 설치하엿고 제일선경찰서에도 각각경제경찰관을배치하여 이래 각종통제법령을 지도취체하여왓다 ... [illegible] 이리하여 이강화확대된 통제법령의 활용과 운용여하는 곳

[illegible]

南總督 貧民村訪問

食糧需給의第一線視察코저 來週府內에"御使出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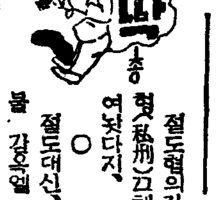
한해대책을 실시하는중에 가장중요한 시절인 삼사월이 가까이 닥처왓스므로 총독부를 중심으로한 관민일치의 식량대책수행(遂行)운동은 드디어 오는 주일부터 전조선일제히 전개하기로 되엇다 남(南)총독은 이 난관극복을 향하여 식량수급의 제일선에 나서서 민중생활의 실정을 친히 시찰하기로 되어 오는주일 우선 첫발을 경성부에 내어디디어 경기도청과 경성부청에서 각각 관내의 식량대책실시의 실정에대한 설명을 들은후 부내의 미곡배급과 민중생활의 실제에 관한 식량배급조합 급 설시장을 비롯하여 빈민굴까지 들어가 세민의 생활을 시찰하여 관민이 일치하여 식량문제의 난관돌파에 향하여 나가도록 격려하기로되엇다 그리고 한해지 방시찰은 기원절을 중심으로하여 ... 떠날예정이다

和信에紳士窃盜

삼일오전십일시경 부내종로 화신상회 삼층양품부에서 어떤 신사가 마후라와 빌로드 한개를 훔처가지고 달아 나는것을 점원이 발견하고 인사정 근방에까지 추격하여 붓잡어다가 종로서에 넘기엇는데 이자는 조선 방송협회사업부 제일가입자 고원정정(元町?) [illegible]으로 방금 종로서에서 엄중히 취조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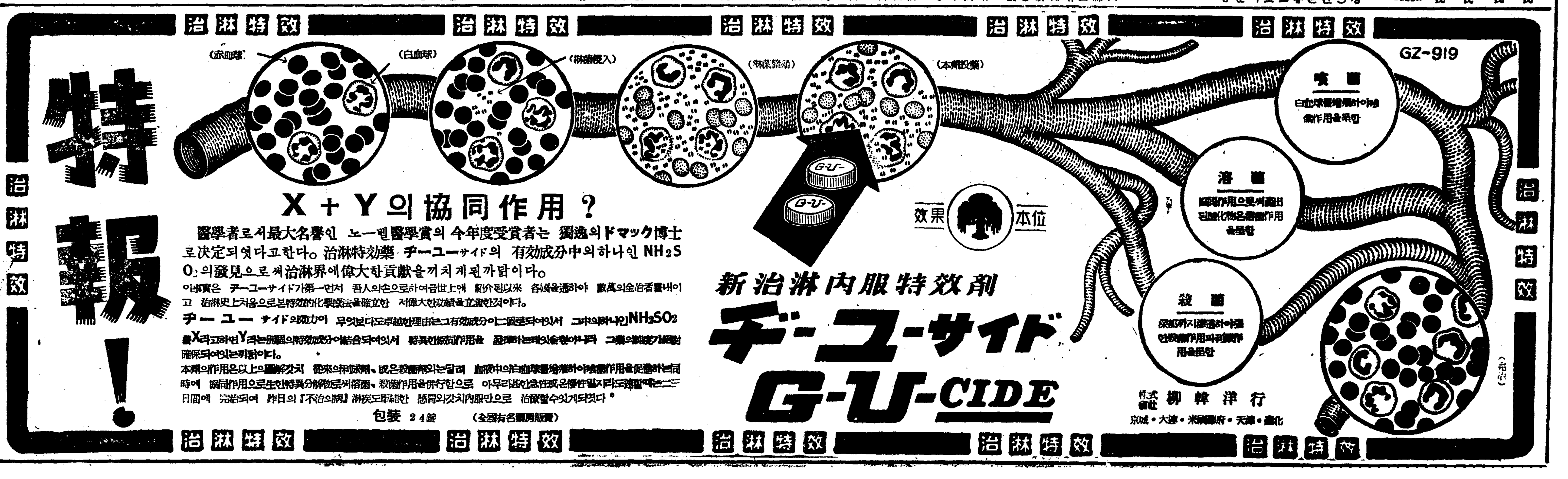
曆

二月四日(日曜日)陰十二月二十七日◆壬支-丁丑◆日出-午前七時三六分◆日南中-午後零時四七分◆日入-午後五時五九分◆晝間-一〇時二四分◆月出-午前四時三一分◆滿潮-午前一時二〇分-午後二時二九分◆午後二時二五分



딱

절도혐의자 사형(私刑)끄테 죽여놋다지.
○
절도대신 불가물 강속일 가야겟는듯
○
이북각회 교회당생이 비싸게 달린다곳,
○
그래도 울건만다 비싸진봇하리



中部版

舊年末警戒에 八十餘名檢擧

【仁川】인천서사법계에서는 구연말경계를 걸처서 지난일월에는 전서원이 각처로 흐터저서 일제검색을한결과 불량자、기생부랑 팔십여명을 검거하고 한편으로는 취조를개시하엿는데 금번에검거된 사람들은 대부분이 일정한직업이업시 떠돌아다니며 음식、기생집등에 잘돌아다니며 유흥에취한 자들이만큼 도경성에서 인천으로와서 음식기생집에서 여자와더부러 동거하든자도 네이나 된다 한편으로는 하루바삐 엄중한 방면에대하여 엄벌을 기하리라한다

얼어부튼仁川바다에 滯船料만廿五萬圓

汽船會社에서稅關에支拂

【仁川】인천바다가 얼어부터대소선박이출입을못하고 검속령을 당한이후벌써이주일이넘어도 날씨는의연히 추운기운이어서조석으로 조수가흘러들어와서다시얼어부터 로는 축항안에 들어온배가 출처럼 나가지 못하고 이주일이상 나 묵어서 각기선회사에서배상을한 체선료(滯船料)를 조사한바에 의하면 지난삼일 오전열시 현재로 이주일동안에 이십오만원이란 큰돈을 세관에 바치게되엇다 그외에도 인천항의 자체로보아 물자의융통이 업서저서 금번정박으로 인천항이적지안흔 손해를보이고잇다 지난이일저녁 일몰시에 들어오는조수가 축항갑문(閘門)까지 팍얼어부터 아무리큰배라도요지부동이므로 기선회사측은 적지안흔 비명을 부르짓고잇다.

果物業者團結 生産組合結成

【仁川】인천부내에 잇는 삼십여명의 과수재배업자는 금번부터 농원에서 농약품과 일반재료가 통제됨에따라 약품을 종전가치 자유롭게 쓰지못할것이므로 그대로잇서서는 금번도의 과수재배를못한다하야경기도에잇는 조선과물협회의 일부속기관으로 금번에 인천과물생산조합을 조직하고 삼십여명의 업자들의 편의를 도모케되엇다 동조합에 참가치안흔 과수업자는 아프로 재료나 약품구입이 통제된까닭으로 배급치못하게되엇다 그리고 동조합의 역원은 다음과가치결정되엇다

組合長 平山末次 副組合長 張光淳

金陵學院新築費로 千圓을率先寄附

鄭濬氏教育熱에感歎

【金浦】김포읍내에 잇는금릉학원(金陵學院)은김포에 유일무이한 무산아동교육기관으로서 소화원년구월부터 개설된이래 김포읍내에서 소규모로 매약상을 경영하고잇는 정준(鄭濬)씨의헌신적 노력으로 현재이백여명아동을 수용하고잇다 그런데설립당시에는 아동수가 불과사십여명에 달하엿스나 향학열이 팽창하여짐을따라 매년지원 아동이 격증하여 현재까지는 동면리에 잇는진흥회관과 명륜당부속건물을 비러가지고 이백여명아동을 수용하고잇스나 교실이협착한관계로 여러가지로 곤란한형편에 빠저잇스므로 금번동에는 그학원강당을 신축하기로 계획을세웟다 그러나 적어도 오천여원의 공사비가 업스면도저히 목적을 달할수업스므로 정준씨자신이 솔선하여 전재산을 제공하기로 결심하고 현금일천원을 동학원 신축기금으로 내여노핫스므로 이와가치 피가끌는정준씨의 교육열에는 일반유지에게 만흔충동을 일으키고잇는동시에 금후에잇서서 김포사회 유지들의 만흔동정을기대하는중이라한다

職業學校新築費로 二萬圓自進喜捐

仁川朝鮮機械製作所에서

【仁川】경기도립인천직업학교는 기보한바와가치 금춘사월신학기부터 생도모집을하려고 인천부에서 제반준비를가추고잇다 인천부내에서 모을기부금이 이십육만원이나 아직도떠오른것이업서 교사신축비로 채입을 마른인천부에서 당화하엿는데 지난일일에는 조선기계제작소(朝鮮機械製作所)인천공장에서 동교기본재산으로 이만원을 영정(永井)부윤에게 보내엇다

피로盟誓

麟蹄崔青年志願兵

【麟蹄】조선인 지원병제도가실시된이래 반도민중의 애국열이 날날이 기피가는이때에 청년남아들은 의기를 자아내여 서로권하며 서로다투어가며 군인되기를 지망하고잇는중 금번제삼회지원병모집에 당하여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瑞和里)기독교신자 최상옥(崔士玉)의삼남 최성옥(崔聖玉)군은 서화소학교오학년생으로서 지난일월이십일에 동교교장 소야전(小野田)씨의 육군지원병제도에 대한강연을듣고 감격에넘처 청년남아의 혈기로 이러한비상시국을당하여 오는동래어 애국열정에 진정인 철천년(鐵千年)의 혈기와호의에 특히감심하여 그지원서를 인제경찰서장에게보내엇섯는데동경찰서장이하 전서원의 감격은물론이고 일반민중에 큰감격을주고 잇다고한다

食糧確保目標로 開城도配給組合結成

【開城】개성지방부민의식량을원활히 공급하겟다는 취지에서결성되는개성부 식량배급조합(開城府食糧配給組合)창립총회는지난일일 오후한시 개성부청회의실에서 삼십삼명의 미곡업자가 모인가운데 송보오(宋寶吾)씨의사회하에 개최되엇다 식순에따라 임시의장 손홍준(孫洪駿)씨를 추천하여 조합의 규약을 통과함새 첫재조합원성의출자금으로 각개인이 최고일만원한도로 출자하기로 원안을 가결한후 다음역원을 선임하엿는데 조합장에는 전기손홍준씨 부조합장에는전일영(全日永)씨가 피선되엇고감사에는 윤관수(尹觀秀)씨외 제씨가 추천되엇는데 그리자 사천리로 통과되엇다 그리자감독자의지위에잇는 송무유파 삼륜(三輪)서장으로부터 일반조합원에대한 주의보고가잇섯는데그 주지는다음과갓다 『배급조합의 설립은 당업자의 이익을 도모하기위한 단체가 아니라 부민의식량배급을 원활히하기위한 통제기관인날을 당업자 여러분은 충분히 인식하야 개인의사리사욕에대한 불평을 운운해서는 안된다 즉 멸사봉공의정신에서 부민의식량을 배급하는 심부름군이되겟다고 결심하고 장사하지안흐면안되겟다』고 말하엿다 그러데동조합고문은 임한선(林漢瑄)씨외 십사명이며 상담역은 고한주(高漢柱)씨외 열한명을추천하고 산회하엿다

트럭이顚落

【咸南支社發】일일오후다섯시경 부산군천남면흥평리(釜山郡天南面興坪里)에서 홍군갑(洪君甲)의 천진수전회사소유 트럭 함남제일호구호는 홍군으로부터 이곳장수를 싣고 달리는도중 돌연『빗트만』되는 비탈에서 이십사메돌이나 되는 비탈에서 그냥 떨어저서 운전수 유히와(尹□□)는 빈사의 중상을입어엇다고한다

國境防共團員들 節米에垂範

【咸南支社發】사상의 진위지대로이용이는 국경지방도 사상전회의중대성에 자부하여야 어떠나서 다음과가튼 절미운동의 미담까지 전하여주고잇다 신갈파(新乫坡)제면내 손동리방공단원사이에서는 지난일월일일부터 삼년동안 가지비법으로 절미운동을 하기로되어 실행하여왓는데 그결과 일년동안에사두삼승이나 쌀을절약하엿다고한다 이단원들은 이쌀을파라서 그돈이 십원을 국방금으로 이십구일 신갈파서장에게 기탁하엿다고한다

製氷工場竣工

【城津】생선의 냉동과 시민의 수요에 응하기위하여 성진만어업조합에서 총공비 십이만원을 드려 성신에 처음으로 설치되는 제빙(製氷)공장은 작년봄 착공이래 공사가 순조로 진척되어 지난이일엔 실제로 조업을 개시하게되엇는데 제빙능력은 하로 七頓이고 저빙량(貯氷)은 삼백톤으로 오마지믄은 금번에 출원부터는 어름기근은 면하게되엇다한다

土幕태운土幕民 百五十名街路에彷徨

仁川桃山町火災民들困境

【仁川】기보=지난이일밤아홉시 사십분경에서 인천부도산정(桃山町)이십일번지 홍경우(洪敬祐)새기공장 숙직실에서 불을때다가 연통에서 불이나서그 이웃집까지 자꾸 번저서 결국 수칠호인가이나 태워버렷다함은 작지 보도한바잇다 그곳은 부두노동자와 지게꾼등의 노동자들의 세민집단부락이므로 찌그러저가는 집들이나마 태워버리고 갈곳이업는 이재민 약일백오십여명은 인천서에서 그이웃집에 수용시키고 세간은 연에 잇는 이흥선(李興善)정미소에보관중이나 용연화은 발표하고 조석끼리도업는 그들이 날로여대하고 도로에서 방황하고잇는터이므로 일반은 그들의처경을보고 동정하여마지안흐나 장차 그들의 안식처가 어데로될찌 우려중에 잇다

이르지하고 목하엄중취조를 하고잇다

乞人이또凍死

【仁川】또거지가 어러죽엇다― 지난이일오후두시경에 인천부항정(港町)일정목 미곡창고주식회사(米倉)압길거리에는 나이오십세쯤된거지가 추위로말미아마어러죽은것을 지나가는사람이발견하고 인천서에알니엿다 이에인천서에서는 경찰의사를 이(李)외근부장이 대동하고 검시한결과 얼어죽은것으로 판명되어 인천부청으로 시체를넘기엇다

歸還軍人感謝會

水原各團體聯合主催

【水原】포연탄우중에서 나라를 위하여 용감히분전한 용소군인들이 다수히귀향하게됨은 참으로감사할일이라하여 수원군수 수원군사후원연맹회장 허일(許一)씨를비롯하여 수원경찰서장 흑하역장(黑河力藏)、제국재향군인 수원분회장 ……(四郎)、수원읍장 매원정웅(梅原鄭雄)제씨가 발기인이되어 각사회를개최한다는바 수원읍민은 다수참석을 바란다한다

時日 二月十日午後二時

場所 新豐公立小學校講堂

會費 金二圓也(申込同時會員證과引換)

申込場所 水原邑事務所

申込期日 二月五日까지

石油로闇取引 不正商人摘發

【仁川】인천부내에는 요즘석유(石油)의암취인이 늘러가고잇다 부내신정(新町)이백구번지에서 국수장사하는 유모(劉某)가 작년십이월이십일부터석유를 부내본정(本町)에잇는 인천석유상회로부터 여러차례에 걸처서 석유를사모아서 공정가격 이외에 폭리만흡취하엿이 오십폭원정도이상원에 공정가격으로정당한이익을 본것이 사십여원에 달하므로 이들인천서 경제경찰

氏制度創設의 協議會를開催

【水原】씨(氏)제도창설에관한협의회를 …… 부정으로 시체를넘기엇다

外釒時里에痘瘡

【大浦】각처에서만연되어 발생되는천연두는 양양군초면와옹지리일백팔번지 어업김기춘(金奇春)(襄陽郡東草面外釒時里一百八番地)는 종두를맛고 사일전에 집에 도라왓는데 지난이십팔일부터우연히알키시작하므로 이소식을들은 경찰관주재소에서는 이십구일 오후한시에 고용의와가치환자의집을 차저가서 진찰을한결과 천연두로판명되엇스므로 교통차단급소독을실시하엿다

新豐小學校에 國語講習會

思想報國聯盟水原分會主催

【水原】수원사상보국연맹분회에서는 문맹을퇴치하고 국어를널리알게하기위하여여덕반、남녀로유를 막론하고 신입하는이에게는 회원으로인정하여 교재서적까지 무료로제공하고 강습회를개최한다는바 이월오일까지에 신입을마감하기로하엿다

漁業 吉田春□(□)은 작년십일월 십오일 처 이승여(李姓女)를 집에두고 돈벌러 함경남도삼농지방으로 수저망(水底網)을 하러갓다가 귀항할시기가 발드하므로 함남경찰서에서 임시실시하

뿌로커―의등살에 올라만가는땅갑

永登浦署에서清掃할方針

【永登浦】영등포를 중심으로한 김포(金浦)시흥(始興)부천(富川)일대는 동지방이 공업지대로서 비약적발전을 하게됨에 따라 최근 외지(外地)에잇는기업가들이 이곳에 투자하는 경향이 늘어가는바면 땅갑은 기하급수적(幾何級數的)으로 올타가고잇다 작년동기에 비하여 현재의 땅갑은 이할내지 오할정도의 폭등을보히고잇고 더욱 요지에는 땅보다도 산이 매매가 성행하여 이것은 작년동기보다 삼할내지 수십할의폭등이라는 괴이한현상을 나타내고잇다 이와가치 땅보다도 산의매매가 성행해진원인은 근대의 도시가 급속히 팽창함을따라 부근의산이 주택지로서발전하게되는 자연의추세라고도 할수잇지만 그보다도 이처럼갑자기 산갑시 폭등하는 진정한원인은 악질뿌로커―들의 발호때문인것이다 사실에잇서서 매매는성행하다고하나 그것이 진정으로 필요한사람사이에 체결되는 매매가업은 뿌로카―와뿌로카―들의손으로 전전매매하는동안 올라가는것은 땅갑 사용가치를 가지고잇는지 의심을아니할수업는 현상이다 이와가치 산갑시 어처구니게폭등하는 반면 악질뿌로커―들의 발호는 점점심하여 토지매매에관한범죄내지고소사건이 빈발하여경찰서에는 산가치 밀려잇는형편으로도 당국에서도 이것은 어떠케해야할지 두통을알코잇다 그런데경기가 폭발하는 바람에 농촌에서 참다케 안저잇든 농민들도 바람이나서 폐농하다십히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적지안허 그미치는바 영향이 큼으로 근근 영등포경찰서에서는 관내전반을 통하여 일제히뿌로카―의청소를단행하기로내정되엇다한다

京電에다시警告

"麻浦線行電車運轉에" 乘務員은態度를親切히하라고

마포선(麻浦線)의 전차가대수는적고 승객은달른놈어 아침저녁출근과 퇴근시간에는 정류장마다 전차타기 경쟁을하는형편이고 그반면에 승무원의태도는 교만하기짝이업서 주민들의 불평이 점점노파가고잇슴은 수차 보도한바잇다 그러나 경전당국은 민중의불평은 본체도안코전차의부족은 의연히 완회되지안코 승무원의태도도 오히려 점점더 불친절하여 전차안에 탈좌석이 우연만흔잇서도 만원표를 내어걸고정류장을 휘휘지날뿐더러 나릴손님이 잇서도 타려는 손님을마기위하여 일부러 정류장을 훨신지난다음에야 정거를하고 승객을 내려노흠으로 그불편과 위험이대단히크다 서대문서보안계에서는 지난이일경전에대하여 정류장외의 정거금지와 승무원의불친절한 태도를 고치도록하라고 엄중한 경고를 하엿다

高原의志願兵 應募者二百卄七名

【高原】함남고원군하에서는、지원병제도에대한 근본취지를 철저히이해시키고저 강연회혹은좌담회를개최하엿든바 일반도점차로 인식을하게되어 지난삼십일까지신입한지원자총수가 이백이십칠명중 적격자육십이명에달한다고한다

燃料不足은不得已

松薪은三千二百萬貫木炭十六萬貫不足

咸南林政當局調節策에苦心

【咸南支社發】겨울추위에 나무걱정은 전조선적이겟지만은 함경남도의 신탄수급이 잘되지못할형편은 도산림과에서 조사한수자를보아서 넉넉히 수급할수잇다 도산림과에서는 그수급의 만전책을 세우기위하여서 일년동안의 수급조사를 하엿는대그 수급상태는 다음과갓다 송신(松薪)으로보면 소비량이 일억오천사백삼십삼만이천칠십관으로 그생산은 일억이천이백오십육만사천육백관으로 부족이삼천백칠십삼만칠천사백십관이나된다 그리고 기타변토도 수요사천사백칠십만 칠백관인데 생산이 사천삼백삼십만구천백구십관으로결국부족이 백삼십만칠천오백삼십관으로 전조선합하면 일년동안의부족연료는 삼천이백사십만사천구백사십관으로 연료난을 원축하므로 구제할수업는것이 수공된다 도목탄(木炭)도 삼백육십사만 일천백사십오관으로서 생산은 삼백사십칠만 팔천일백사십오관으로 부족 십육만이천사백관이나 된다 이러케 수급관계에잇서서 원래 부족되는 현상으로서 함경남도당국에서는 그수급조절에 만전을 다쓰고잇는데 이연료난을 해결하는 여부는 도민생활에 지대한영향을 주는것으로서 도당국의 노력에 신뢰를하고잇는터이다

紀元節奉祝式典

水原邑의行事決定

【水原】황기이천육백년을맛는수원읍에서는 오는십일일 기원절을당하여 일반읍민에게 식전에 대한 순서가발표된바 당일오전구시에는 일제히 국기요배를 할것과 동십시에는 수원신사에서 봉축식을 거행하고 정오에 축하회가 잇스리라한다 그러데 회비는 매명오십전이라는바 준비관계상 수원읍으로 미리신청하기를바란다한다

志願兵座談會

【江陵】강릉경찰서에서는 지난 삼십일일부터 이십일까지 이일간에걸처 동서면내의 각정리별로 동지방국가(玉陵)씨、신제(金□)、享씨등 재향지원병을 중심으로한 좌담회를 개최하엿는바 좌담회석상에서 축석지원자다수로 자못효과가잇섯다고한다

牙山郡穀物配給 組合協議會開催

【牙山】충남아산군곡물배급조합(牙山郡穀物配給組合)에서는조합원협의회를 지난삼일에 아산군청회의실에서 각면공서장미리 개최하엿는데 동회의 지시사항과 수지예산은다음과갓다

◇指示事項

一、穀物個人賣買禁止의件

二、酒造의販賣에關한件

三、穀物買占取締에關한件

四、雜穀併賣에關한件

五、穀物配給指定人에 對한 保證金에 關한件

六、穀物販賣方法에 關한件

七、穀物配給指定人의 注意事項에 關한件

八、販賣價格에 關한件

◇十五年度收支豫算

▲收入金 三十六萬五千七百九十六圓也

▲支出金 三十六萬五千七百九十六圓也

白米小賣價格

七分搗米 石當 四一圓八○錢

六分〃 〃 四一、二五

四分〃 〃 四○、一五

三分〃 〃 三九、三○

連二年의水害復舊費 四十三萬圓容認

道要求三分一에不過

【咸南支社發】소화십삼년과십사년의 대수해 상흔이 낫지안흔데 재차 작년여름에 대수해를 격근함남도는 도로하천에 대하여시급히 복구할곳이 극히 만흔데 이에 대한 예산은 의외로적어서 실망하고잇다 총독부에서 삼십일도당국에 시할 재해복구예산은 도로만 팔천원지방서서 국도이십칠만 …… 하수기타 복구비로서 십갓다

006416

優良線路班表彰

【城津】성진에서는 소화십사년도에 잇서 선로반(線路班)을 오는 각역의 선로반가운데 가장우수한 철도원 열한시부터 동사무소에서 표창하기로 되엇는데 표창당한선로반의 역명은 다음과 갓다

▲優良 龍岡、院坪、蘆洞、酒幕山、深浦里、西湖

▲佳良 新北靑、城津、內浦、漁大津、白岩、下皐土

氷上競技大會

오는十八日昭陽江링크에서 春川體育協會主催로

【春川】춘천군체육협회주최로제일회 빙상경기대회는 오는십팔일 오전열시부터 소양강링크에서 거행하게되엇다 시일은 십일까지이며 일반은 신입은 다음과 갓다 경기종목은 다음과갓다

▲老年之部(三十五歲以上)四百米

▲一般之部 四百米、千五百米、三千米繼走

▲中等之部 五百米、千五百米、二千米繼走

▲初等之部 二百米、四百米、八百米繼走

▲女子之部 五百米、千五百米、二千米繼走

社告

今般本社에서左記와如히支局을變更하엿사오니照亮하시압

朝鮮日報社 白

寧邊支局 位置 平北寧邊郡邑內 變更 昭和十五年一月二十九日 支局長 張日永

雄基支局 位置 咸北雄基邑內 變更 昭和十五年一月二十六日 支局長 丁淳達

楊口支局 位置 江原道楊口邑內 變更 昭和十五年二月一日 支局長 金澈洙

右新任 支局長 洪□□

右解任 支局長 尹濂鎰

謹告

球場支局 記者 尹洪喆 右新任 球場支局 白

黃池洞支局 記者 金歌周 右新任 記者 金仁學 右新任 記者 鄭仁赫 右解任 黃池洞支局 白

殷栗支局 記者 崔鎬源 右解任 殷栗支局 白

永興支局 總務兼記者 劉載政 右新任 永興支局 白

海南支局 總務兼記者 成周玉 右新任 海南支局 白

董潤支局 總務兼記者 朴基哲 右新任 董潤支局 白

慈山支局 記者 林士鎬 記者 崔台仁 右新任 慈山支局 白

崇仁分局 記者 李相勳 右新任 崇仁分局 白

雄基支局 記者 鄭□寶 右新任 雄基支局 白

水原

第四回 中部朝鮮氷上大會

◇時日 二月十一日下午一時

◇場所 西湖링크에서

◇申込期日 二月十日正午까지

◇申込場所 水原支局、本社支局

◇主催 朝鮮日報水原支局

◇後援 水原體育會、水原體育俱樂部、京東鐵道株式會社、水原邑

寂寞無味른몸이「킹-그」만먹으면 春宵의一刻이如千金이구나-!

人生에의赤信號

男子가四十이면 精力의凋落期이다

天地는 悠久無限하야 萬古不變이엇마는 이내몸은 한번가면 다시 오지못하는지라 青春의歡喜를 그누가 실타하겟스며 早老의悲哀를 그누가 조타 하겟스리요 男子가 四十前後이면 精力이 絶倫하고 元氣가 旺盛하야 抱負經綸과 外事內事가 至今부터라 하겟슴으로 總能率을 發揮하며 總歡樂을다하는 人生의 爛熟期라하겟거늘 青春의 酷使로 生理機能에 障害를 이르키어 早洩、陰萎、遺精、夢精의症狀으로 內事의滋味를 모르고 沙漠과가튼 人生이된다면 그얼마나 애가 탈것이며 情熱의濫費로 極度의 神經衰弱에 걸려 頭重、眩暈、不眠、虛弱으로 全身에倦怠와 疲勞를느끼며 後半生이無爲無能해저서 外事에 失敗만한다면 이또한 기막힌일이아니랴!

早老해지는原因

年齡이 七八十의高齡이면서도 精力과陽氣가 旺盛한재로 젊은사람부럽지안케 잘지내며 子女까지 엇는사람이잇는가하면 한편에는 그와反對로 不自然老衰인早老로因하여 不過四五十에 그만陰陽無精해서 아직도 前途遼遠한後半生을 悲嘆으로 보내는 사람이 이世上에는얼마든지잇다

◇

그런데 이不自然의老衰인早老를 防止하려는根本原理가 生殖腺內分泌機能의(性호르몬) 作用研究의完成과同時에明白해저 사람은 年齡이만어서 늙는것이아니고 生殖腺內分泌機能(性호르몬)이 減退하여 生殖能이衰弱해지면 年齡에는無關係로 二三十台의青年일지라도 老衰해진다는것이判明되엇다

◇

即生殖腺內分泌機能(性호르몬) 作用이旺盛만하면 六十이나七十에도 決코老衰치안으며 精力과陽氣가絶倫한재로 언제까지든지 青春을누릴수잇다는것이 證明되엇다

◇

早漏가그만낫게되어 (京城) 郭俊陽

어디한군데 알는곳업는 健壯한 體質이오나 엇전까닭인지 여러해를 早漏症으로 하며 不快감만그냥 지내든바이엇습니다 그리하와 悲觀만하옵든中 貴堂의 回春藥인「킹-그」十圓分一瓶을 服用한것이因緣으로 그만낫게되고보니 發明하신제 太博士께 感謝不已하는바이오며 男子에게는 第一必要한 엇지도할藥이라고 기뻐하든時에 그런藥을 販賣하시는 貴堂에게도고맙게생각하오며 十圓分을先金注文합니다.

몹시애타는病을곳처 (釜山) 李達春

病도病가지안흔것이 애만태우는것은 아마陰萎症일것입니다. 老生이 이陰萎로 남에게 말도못하고 혼자속을태워왓사오며 더욱이 百藥이無效하여 기가막히든차를 마지안햇습니다 그러든것을 友人의 알림으로 貴堂의「킹-그」를服用하고 完快되고보니 聞何喜悅이 지내든것이꿈속갓사오며 感謝드리는發表에 一言一筆로하엿읍니다 今番도 十圓分二瓶二人分을 共同注文합니다

萬事를解決해준다

男子四十以上 相當한老境에達한 몸이라할지라도 青春時代와가튼 精力으로 昔日의感情을다시차지려하며 長生不老하고저하는 心理는 그누구나 하는바어늘 하물며 一騎當千하는 男氣와絶倫한精力으로 自己의目的하는바에 向하여 突進해야할 四五十歲나 山하면 人生의山巓期인三十歲에 樹氣와魄力을잃고 落伍의生活을하며 早老無氣力한身體로 愁後悔하는 一生을 보내게된다면 그엇지 男子로대여난보람이 잇다할수잇겟습니까 그러하오니 조금이라도 自己의體力에對하야 心身의衰弱을느끼거나 性的欠陷이 잇는것을깨닷게되시거든 조금도주저마시고 이제곳 無類의回春滋補強精大藥『킹그·오브·킹그스』를服用해보시요 妙效百出의藥能으로 먹는그날로부터 萬事가그만解決되게되실것입니다

驚異的快速効果

生殖學界에 世界的으로 大權威인 日、獨醫學博士 羽太鋭治先生이 人體의生殖腺機能에對하여多年間解剖的實驗과 顯微鏡的研究의結果 人間의生殖、成長、老衰等사람의一生은 그全部가生殖腺內分泌機能(性호르몬)이 支配하고잇다는 發見을하고 苦心努力한結果 創製한것이 本科學的回春劑『킹그·오브·킹그스』인바 本劑는 青春期에잇는가장精力이絶倫한 男性動物의 生殖腺에서 抽出한 數十種의(性호르몬)과 現代醫學으로 青春誘惑誘出의促進作用이잇다는것이 確實証明된 强性補精藥物의有效成分만을合理的으로 配合한外에그効果가 快速을期하는動力인 極秘의化學藥品을加入製劑한것인고로 服用하면 不過幾分以內로 青春으로 更生되며 精力과陽氣가 滋發해지며 元氣가旺盛해저 如何한性的欠陷이라도 대번에解消되는 早老해진 現代人의 그누구나 한번 服用해볼만한唯一의 熙妥劑입니다

本劑『킹그』로 回春更少年이되시고 人生의寂寞을 물니치시려는분은 朝鮮에서도 全道有名한藥房의 販賣하오니 指名買入하시와 使用해주시되 近處藥房에업거든 買入不能하신때에는左記代理店本舖로 振替나 或은 貸替 또는代金引換便으로 注文해주시면 急送하오며 藥價는一○○粒入(小瓶)二圓、二八○粒入(中瓶)五圓、六○○粒入(大瓶)十圓입니다 送料는 四十七錢이오나 本舖에서 三十二錢은 負擔하오니 十五錢만은 加算해주시되 代引便注文은 送料十五錢을 더보내주십시요

注文은速히하십시요

東京市芝區新橋 總代理店 合名會社 春泉堂 (振替東京七七一一番)

最强力호르몬元 生殖器能强壯素

キング・オブ・キングス

松竹映畫 明治座

2日－4日 上映時間表

	ニュース		ターザン
1	10·00…10·20	……	10·23…11·45
2	11·55…12·14	……	12·17… 1·39
3	1·40… 2·00	……	2·12… 3·34
4	3·34… 4·04	……	4·07… 5·29
5	5·30… 5·50	……	6·02… 7·24
6	7·35… 7·55	……	8·00… 9·22

五日より 新女性鑑 (ターザンの逆襲同時上映)

釜山劇場

半島劇界初有舞臺効果 キネオラマ使用

興亞劇團一行

新春을裝飾하야 釜山太平 ……

閔暎容 千島名コンビ ……

W·E·オケストラ 興亞ショウ演奏

現在京釜線より西鮮地方巡業中

若劇

日曜日の上映時間表 (2月4日)

ニュース	9·30	1·40	6·00
花婿往來	9·40	1·50	6·10
ニュース	10·45	2·35	7·20
光と影前後篇	10·55	3·05	7·30

大陸劇場

自2日至6日 上映時間表

	ニュース狐			ターザン	
1	10·00	10·37	………	10·42	12·04
2	12·15	12·57	………	1·02	2·24
3	2·35	3·12	………	3·17	4·49
4	5·00	5·53	………	5·42	7·04
5	7·15	9·27	………	8·05	9·27

東洋劇場

劇團豪華船新春公演 二月三日부터

宋影作 "善人街" 三幕五場

東劇文藝部 演出 決定版 春香傳 全幕

電話光 四四 一五 九五四番

桃花劇場

二月二日―四日

沙羅乙女後篇

素晴しき休日

石童丸

第一劇場

劇團阿娘第六週公演

二月二日밤부터

안해의告白 三幕五場

京劇

二月一日부터上映番組

第一回 十時半 第二回 一時半 第三回 四時 第四回 七時

新興東京時代劇 若妻の夢 山路ふみ子初の悲劇

新興京都大衆篇 笠森おせん 鈴木澄子二役主演

ニュース

大衆席 三○錢

優美館

二月二日より番組交換

疑問の天使

演劇號大公演

中學士秦權氏大人 元判事錫定公以宿患今日午前六時別世茲以訃告

永訣式 二月五日午前十時 自宅

葬地 新興郡新興面中興里先山內

昭和十五年二月一日

嗣子 秦□□

長篇小說

사랑의 水族館 (139)

金南天 作 鄭玄雄 畫

愛慾과함께온것(九)

차가 동대문 어름 지날때에 현순은

『저 여기서 내려어 주서요 까레지를 차자서 박씨두 바꾸어 타구 가겟서요』

하고 말하엿다.

『괜찬송 데이 어딘지 거기까지 데려다 드리께 주소를 할하시오 요줌 어데서 박씨를 어떠 라겟송 이건 내치니까 엽희딸구 데에까지 데워다드리리다』

여며 안흔 늙은 신사는 그러케 말하엿다. 그러고는 현순이가 잡잡히 안잣는것을 보고는

『찬 바람에 쏘이면 감기 들리리다』

하고 청부하듯 하엿다.

차는 종로쪽을 향하여 달리고 잇다.

현순은 차창밖을 내어다 본다. 유리창에 제의 얼굴이 비친다. 그는 비로소 제의 옷주제에 신경이 미첫다.

외투는 흥뻑하니 저젓고 머리카락은 눈과 비의 결정체가 설키고 얽히어서 어떤꼬은 제법 고드럼처럼 매어 달렷다. 나체는 뜨거운혈조로하여 눈이 녹아화장한것을 씻고 구접지근하게물이 흘러 덜미와 가슴으로숨여 들고잇다. 그는 여자다운부끄러움을 느끼면서 얼굴을 미트로 떨어 트렷다. 양말은 젖고 흙물에 씻기운 구두의 한 짝은 뒷축이 부러저 업서 젓다. ―이모양을 하고는 어디 길우나 『까렛지』에서 자동차를 잡으려 나슬 처들 용기도업슬 것갓다.

그래서 그는,

『어디요? 댁잇는데를 말해야지……』

하고 자동차의 주인이 말하엿슬때

『죽천정 야마도 아파-트 예요』

하고 나직히 대답지 안흘수업섯다.

『저어 죽천정 야마도 아파-트에 먼저 들렷다 가세』

이러케 말하는 소리에 운전수는 아플 바라본채,

『네』

하고 대답하엿고 어욱고 차는 속력을 더하여 사람드문 차도를 질주하기 시작하엿다.

이윽고 차는『아파-트』아페 와서 머젓다.

『감사합니다』

현순은 신사에게 공손히 머리를 수그리어 사의를 표하고차에서 내려 누구가 볼세라 현관을들어서서 계단을 바삐하여 저방으로 들어갓다.

문을 잠그고 ㄱ는 외투를벗서 던지자 침대에 따두첫다. 그리고는 한동안 우둑히 처바치는데로 그는 물과 마음을맞꺼버렷다. 불도 켜지안흔 캄캄한 방안에서는 오래동안 여자의 흐흐 소리가 멋지안햇다.

어둠을 현순은 오한과 열로 하여 그대로 침대에 누어잇섯다. 가까스로 몸을 들리 양자언니에게 곳 와 달라고 기별을 하엿다.

무슨 영문인지 모르는 양자는 편지를 받는대로 어내 쫓차 왓스나 현순이의 변한 모양을 보고 질겁을 해서 놀랏다.

『아아니 너 어떠커누라구 이러니?』

하는 품이 그는 현순이가 쓸데업시 경솔한 잘못이라도 저지른줄 아는 모양이다. 사실 양자는 침대에 맥업시 누어 잇는 동생의 혈색과 체온을 만저 보고어떠 불길한 예측을 풋엇던 것이고 흑여 옴독가튼것을……? 하고까지도생각해 보앗던 것이다.

현순은 정신을 가다듬으며 대강한 이야기를 혀에게 들려주엇다.

『개가튼 녀석가튼이!』

하고 양자는 제의 아저씨를 욕질하고 나섯다.

『그런 인물두 체면두업는 집승가튼게 잇담!』

양자는 신수사가 저의 아버지 박씨편으로 외척판계가되는 아저씨인 때문에 애매한 현순의 봉변에가벼지 안흔 책임을 느끼고 잇는 것이다.

현순의 병이 이내 회복되지 안하서 양자는 밤일을 쉬고서 아파-트에 가치 묵으면서 그의 간호를 하엿다.

하루人밤을 지내고 나니 현순의 몸은 다소 평정한 상태로회복 되엇다.

『언니 인제 밤부터 가게에 나가 보우』

『글세 내 걱정은 말아!』

양자는 미음을 쑤어서 주면서,

『어서 한 이틀만 푹 누엇거라. 그래야지 네가 몸이 제대루 되겟다』

그러나 현순은,

『온 언닌 별소리두 내가 무슨 큰 병을 당하면수 사흘씩 나흘씩 이불 쓰구 누엇게…』

하면서 그러나 우슴만은 력력하게 웃어보엿다.

이때에 두어번 【녹크】를하고 신수사가 문밧게 나타낫다.

演劇映畫

●洪開明氏의茶房

다방(茶房)과 친한 분으로는 연극 영화계에 수두룩하지만 여기에 소개하는홍개명(洪開明)씨도 상당히『고-히』를즐기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어는을 만나려면 낙원정 그의 자택으로 찻느니보다 종로 어느 차人집으로 차자가는편이 안전하다.

『대체 하루에 몃잔이나 커피를 잡수십니까?』

하면 씨는 언제나 눈을 깜박거리면서

『글쎄―한 십여잔 먹을까』

하는것을 보면 씨역시 일마나 자시는지 수효도 잘모르시는모양.

홍씨도 요 톡이 되면 기쁜소식을 들려주마니 그때까지 차나 마시며기다려볼까―

●作曲家金駿泳氏

예게 스므개씩 아무해 작곡할것이 산가치 밀려도 한번 어른을 깔고 놓기만 하면 단 하루밤에 마치 치부나 하듯이 척 척 헤치우는 분이유명한 김준영(金駿泳)씨다 이분을 왜 까느냐고―? 여기에는 비밀이 잇다. 즉―씨는 작곡을 하려면 반드시 이부자리를 펴고 방바닥에다 배를깔고서 하는 버릇이잇다 이것은 물론 그의부인과 또 아는사람만 아는 비밀일것이다

그러던 세가 웬일인지 못에다 붕대를 첫첫갑고 나타낫다.

『아 웬일이십니까』

하고 잡자아니 그렇게 어는 가지고 물으니까,

『팔 벳서. 고만 감기가 들엿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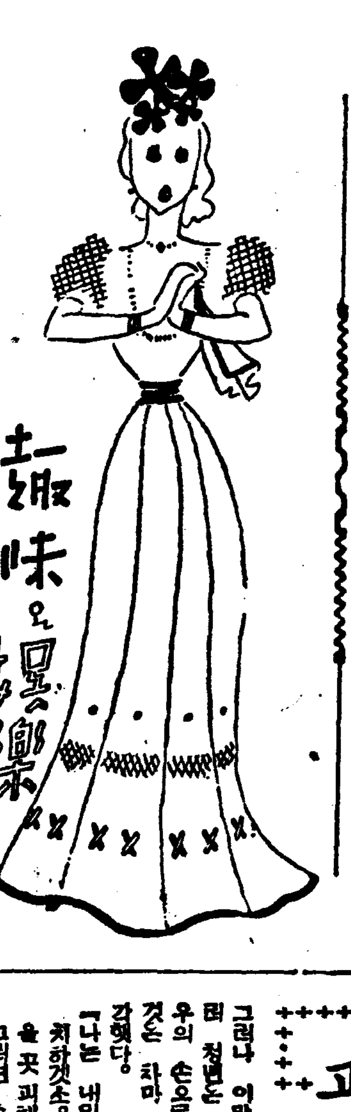
『몬버려에 감기를 들리기로 할……』

하니까,

『아니야, 어저께 그냥 업더려서 작곡을 하다가, 그냥업드린채 잠이 들어것든―』

하더라고.

너무 업드려 일을 해도병이 든다는것은 특히 김씨로서는 새각할점。



趣味와娛樂

歐洲戰場은외친다

武器보다銀幕으로!

영화는 최근에 이르러 단지 오락이나 문화의 영역에 머므르지안코 한걸음 나아가 정치적인 선전기판으로 쓰여지게된것은 사실이다.

이것의 실례로서는 최근불란서『아리트트』회사에서 제작된『〃마지노〃요새』파『불란서、국방』이란 작품이나 혹은 독일 선전성(宣傳省)의제공인『〃지·그프리드〃요새(要塞)』가튼 국내선전파 또는외국에 대해서 시위를 목적으로 제작된 영화만 보드래도 넉넉히 알수가 잇슬것이다.

이번 제이차 구수대전란에 잇서서는 이가튼 경향이 더욱 강조되어 영국의『알렉산더-코다』작품인『사자는 날개를 가젓다』를 비롯해서『아메리카』의『〃나치·스파이〃의 고백』이나 또는『대서양겨멸』의 강화를 부르짓는『류비에』의 작품인『아버지와아들』등 작품이 계속적으로 뒤를 이어 제작되엇다.

高協『春香傳座談會』 六日 明月館에서

극단고협(高協)에서는 오는삼월에 시내부민관에서 본사신춘문예당선작품인 함세덕(咸世德)씨작『해연(海燕)』과 그외에유치진(柳致眞)씨작『춘향전(春香傳)』을 상연하기로 되엇다는바 동극단은 이에압서서 오는 륙일 오후다섯시반 명월관(明月館)에서『춘향전좌담회』를개최하기로 되엇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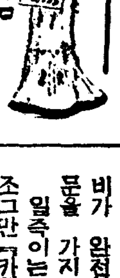
注目되는洋畫配當問題

"施行細則"十五日公布

지난 일월사일에 공포된『영화령(映畫令)』에 따르는 시행세측(施行細則)은 그후총독부심의실(審議室)을 거치어 지난일월 한달동안 내무성(內務省)에서 심의중이어던바 수일내로이초안이 무난 통과될듯 함으로드디어 오는 십사 십오일전후해서 공포되게되엇다

더욱 영화령에 부터 주목을 끌고잇는것은『양화배당(洋畫配當)』이란것으로써 총독부검열실에서는 그참고재료로서지난이일 각양화배급업자에게 소화십사년도의 각사양화의 전소선각상설관의 봉절작품수효를자세히 조사하여 제출하라는 통지를 내엇는바 당국으로서도아르모양화의 배당문제에 딴하여서는 특히각별한주의를 하고잇는것이 사실이라한다

어작품들은 어며 우리나라에도 수입되지 잇고 또는 발금 수입준비중에 잇는것도 잇스므로 중립을 표명하는 이곳이만치 각 배급자들로어떠케선전을 해야될까 이엿시『스크린』의『씨-즌』인 신춘을압두고 머리를 알른문제의하나라한다



終林片信

『終林發見盟』대호행이『깽』에게 습격을 당햇다!―백만장자가 파산하엿다!―낙교계의『스타-』가 이혼하엿다!―이러한 신문의 사회면『톱』타이틀이『스크린』에 척척 비치어 흥사히 정말 신문을 백여서 그러케 영화속에다집어너흔것 가튼나 물론 이것은 거짓말이다 여기에 내막을 알아보자면『헐리웃』에서는 거짓말 신문이 발행되고 잇는것이다 물론 이 거짓말 신문은 정말 신문가치 보이기 위하여서 충분한 주의를 요르한다 예를 들면『파라마운트』사는 보통신문사와 가튼 기게의 설비나 모든 준비가 완전히 가추어잇는 신문을 가지고잇다. 일주이는 어느 보잘것업는 조그만『카페-』에서 유행가를 부르던 여자가 일략『오페라』의『프리마돈나』로 출세하엿다는등 흑은 살인범이 탈주하엿다는등……이런것으로 제일면을 장식하면 고만이다.

그리고 그 남어지는 된말안된말 그저 글짜만 늘어노면 된다. 물론 이것은 전부 거짓말이다.

그리고 서운한것은 이 홍미『백·퍼-센트』의 신문은 돈을 주고 삼래야 살수업는것이다. 말하자면 이것도 대『헐리웃』의 알수업는 신비의 하나이다.

메트로問題作에 엄청난가위질

『메트로』사의 문제의작『바람과함께사라지다』는 촬영을 시작하면서부터 주역과 그외의문제로 우신각신해서 엄지는 완성이 못될뜻이많이낫든건데 최근에 이르러 어느틈에 완성되고마럿다. 그러나 촬영을꼿내고 시사를 해보즉『필름』의 기리가 자그마치 십육만『피-트』이요 영사 소요시간이 이십일시간 이래서 또 말성이생기고 마럿다. 원악 문제의작이며 대중에 영향될것은 명백하나실제문제로서 이처럼 장대한 권수로는 주체를할수업서 결국은 고까『필름』이며 무엇이며따질것업시 전장십육만『피-트』중에서 이만사천『피-트』를『커트』하기로하고 영사시간은십시간이십륙분이란 단시간으로하고 말엇다

新春佳作紹介

佛蘭西U·D·I·F映畫 背信(原名 Abus de Confiance)

主演…『다니엘·다류-』

(梗槪)

X교수들 사이에서도 장내에 만흔 기대를 가지고 잇는 아름다운 법과(法科) 대학생『리디아』=(다니엘·다류-扮)=의 오직 하나의 유친인 할머니가 돌아갓다는것은 그야말로 청천의벽력 가랏다。

그것은 우선 마음에 큰 상처엿지만、그보다도 문제는 그날부터도 당장 사나운 세파와 싸우지 안흐면 안될 생활문제가 어쭙가로 막는것이엇다。

X『아아、인제부터 나는 어떠커면 조탄 말이냐?』

인정도 의리도 업는 어틈人장가튼 대모회에 다만 홀로 내친을 바든『리디아』는 여지껏 대해오던 세게 되게 되엇던것이다。

하숙의 주인은 얼마간 밀려잇는 하숙밥갑을 피게로해서『리디아』에게 호통을 생각까지를 품는것이엇다。

『리디아』는 난생 처음으로 추악한 생활의 일면을 보앗고 또한 파렴치한 사나이의 본성을 눈아페 대햇던것이다。

X아모데를 가도 그에게 적당한 직업은 선뜻 나와 판연히 다른 자리찬세계로 뛰어들지 안흐면 안되게 안햇다. 그는 외종일 돌아다니다가 괴곤한 다리를 끌고 인제는 함부로 걸음이 내치는데로 거리를방황하기 시작하엿다。

학교서 동무이던『애리스』는 경박하고 그러나 방낭한 여자엿스나『리디아』의 곤궁한것을 보고는자기의 선미대로 무모한 제안을하엿다『애리스』는 곱살상의 딸이엇다 그래서 자기아버지의 경매상에 나온헌책중에서 넘아서 잘 보이지도 안는 헌『앨범』을하나차자내엇다。

이것이 그에게 어떤『힌트』를 준것이엇다。

『앨범』은 한 어린처녀배우가 어린아이를 안고 사진한장이 부려잇섯다。

그리고 그 사진여배우의 추억이 잘게 써어잇엇다。

즉 자기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한 사나이에게 대하여 불가치 뜨거운 연정이 담뿍실린 글을 쓴것이 어엇다。

그리고 그 여자는 자살을하고 만것이엇다。그의사나이는『쟈크·페르네』라 하엿다。

그로부터 이십년이 지나서、『쟈크·페르네』는 유명한 역사가가 되어『베르사이유』에다가 호화스러운저택을 짓고 지나간 모든과거를 깨끗이 이저버리고안해의 따뜻한 사랑속에서、『피에르』라는 젊은비서(秘書)로 두고서 그날 그날을 평범하게 보내는 것이엇다。

☆『애리스』는『리디아』에게〃앨범〃을 가지고그리로 가라는것이엇다。

『리디아』는 단번에『애리스』의 제안을거절하엿다。그러고 다시 직업을 차자 나섯다。

그러나 모두가 그에게는 괴로운것 뿐이엇다。마침내 그는 다시『애리스』를 차자가서『앨범』의사나이를 찾은것이엇다。

『리디아』는『페르네』를차자갓다。

『당신은 누구요? 그리고이『앨범』은 왜 가지고왓소?』

하고 물엇슬때『리디아』는『이『앨범』에 잇는사람은 우리 어머니애요』하고 거짓말을 하엿던것이다。그는 그집을 나와 걸을 결으면서

『배신! 배신!』 그러타나는어떠한 범죄보다도 더 무서운 배신을한것이다』 이러케 부르지젓다。

그는 괴곤할대로 괴곤한 다리를 이끌고 거리를 헤매다가 역시 학교의 동무 어떤 어떤사나이를만난다。

그러나 그사나이 역시『리디아』에게 구하는것은―?

X최근 불란서 영화계의 가작『배신(背信)』의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비로소본격적으로 풀려나가기 시작한다。

(사진은『背信』의다니엘다류-)

監督…안리·드코앙

原作…피에-르·월프

台詞…안리·드코앙 / 잔보와이에

脚色…

裝置…기드·카스티-느

作曲…쇼르주·뷔·파리

演奏 指揮…록이·왓

主演…다니엘·다류-

連載野談

信義譚 (2)

金澄雲

第三席 사랑을버리고

『자네에게 어떠케 그일을맛기겟는가?』 하고 어부는 말하엿다. 『안될일입세』

하고 어부는 다른 청번을 도라보며 말햇다.

『아니오 나는 의당승무러선를 위하여아니 나라를 위하여 모든것을 히생하려고결심햇소』

라고 도우는힘잇게 말햇다.

그러나 이말을 듯고잇는 여러 청년은 민수의 생명을 도우의 손으로 빼앗게 한다는것은 차마 못할일이라고 생각햇다.

『나는 내일밤안으로 그를 처치하겟소 여러분은 내일을 곳 괴해 주시오 자―그러면 준비를 위해서 먼저 실례합니다』

하고 벌떡 일어서자 어부는 곳 도우의 우자락을 잡으며

『자 그러면 굳한 믿고 이일을 마끼는것이니 성공해주게그려고 마주막 작별의 술이나 한잔씩 듭시다』

이리하여 그들은 봉회가아니면서도 그중한 술잔을 도우에게 마끼고 작별의 술을 나누운후 세차게 쏟아지는비를 마주면서 각각 도라가섯다.

그 이튼날 도우는 밀서(密書)를 써서 오래간만에 민수의 딸 눈에기에게 전인해 보냈섯다.

그 내용은 자기네들의 역행위가 모두 절로되어 일 새벽에는 거사하게 되엇는데 자기는 차마 의리(義理)를 끈흘수가 업서서 후회하는 남어지 이 사실을 고하려고하니 아버님을 곳 좀 뵈옵게 해달라는 간단한 편지엇섯다.

어 편지를 바다본 눈에기는 마치 죽엇던 남편이 다시 살아온것처럼 기뻐하고 그기험에 못이기어 혼혼 느끼어하다가 아버지인 민수에게 가저다 드리고 아버지의 동정을 살폇다.

도우의 편지를 읽는 민수는 그 큰 두눈이 더욱 둥그래지며 얼굴 근육이 제각각 울죽이엇다.

기까지 하엿다 눈에기는 그 편지를 가슴에 안고 한참어나 혼자 조

민수는 편지를 다 읽고난 뒤 눈에기를 도라다보며 『용궁 그러케지! 도우가 그러케 어리석은 사람은 아니어면! 너도 기뻐하라.』

그리고 곳 오라고 회답해 보내란』

하고 눈에기의 등을 도닥도닥 두드렷다.

눈에기는 자기 방에 도라오자 곳 아버지의 말슴대로 회답을 써서 도우에게 보내고 얼마 안되어 사랑하는 이를 만나볼것을 맘의눈으로 그리고 잇섯다.

도우는 편지를 써보내고하회가 어찌 될까하여 여러가지로 맘을 조이고 잇다가 눈에기의 반가운 회답을 밧게 되엇다.

그러자 도우는 미리 준비해 두엇던 비수를 기괴간직한 다음 흉도 개신 어머니에게 인사를 드리고 일어서자 맘속으로는 다시 뵈일것 갓지안하 눈가이 뜨거워짐을 깨다럿다.

도우는 민수의 저택에이르자 아무런 경계도 밧지안코 청직이의 안내로 안 대청까지 들어서게 되엇다.

기다리고 잇던 눈에기는 고개를 숙인채 마루압까지 나와 도우를 기쁘게 마지하여 들인 일인만에 처음 안나는 니마만지 무슨 말을 하여야 조흘지 서로 눈치만 보고 잇섯다.

눈에기는 분우를 원망하다고 애원에 가까운 표정으로 도우를 흘겨보고 잇는 한편 도우는 눈에기의 감정을 더 뜨리지 안케 하기 위하여 될수잇는한 그러워햇고 반가운 표정을짓기에 힘을 썻다.

그러나 도우는 눈에기와자리를 가치하고 안게되매 웬일인지 자기의 결심이 한때 디 두매디 흘러 눈것을 깨닷게 되엇다.

그의 눈아페는 눈가치 고 비단결 가치 고흔 눈에기의 돋질한 처녀의 육체가 향그러운 냄새를 풍기면서 매아미의 허물가튼 엷은 옷에싸혀잇지안는가.

그 탐스럽고 분결가치고흔육체가 남의것이라 할지라도 할만 하겟거던 나의 손으로 될것이니만치 더욱 끌어안고시픈 욕심이 불꼿가치 치밀엇다. (계속)

오디라

四日 (日)

▲午前七時五〇分 宮城遙拜

▲同七時五一分(東) 라디오體操

▲同一一時五〇分 氣象通報

▲正午(東)時報 오늘아러두실것

▲午後〇時五分 俗曲 一、念佛 二、打鈴 三、신아위 四、굿거리 大笒 方龍鉉 杖鼓 韓成俊 金德鎭

▲同一時 名曲鑑賞(레코-드) 交響曲 第四番 차이코프스키- 作曲 解說 金世炯

▲同〇時三〇分 뉴-스

▲同四時 뉴-스

▲同六時 라디오日曜學校 一、童謠 (레코-드) 二、이야기 『希望을가집시다』 盧良根

▲同六時二五分 產業뉴-스

▲同六時三五分 修養講話『人生觀에對하여』 梁柱三

▲同七時 뉴-스 天氣豫報

▲同七時三〇分(平) 라디오小說 〃彷徨하는熱情〃 林浩一作 金正好 王壽福

▲同八時 南道歌謠 一、새打鈴 二、六字백이 三、興打鈴 四、개고리打鈴 趙蘭玉 趙錦玉

▲同八時三〇分 歌詞 一、春眠曲 二、길軍樂 鄭海坡 金桃紅 大笒 金永根 杖鼓 李斗峰

▲同九時 西道歌謠 一、孔明歌 二、긴難逢歌 三、자진難逢歌 四、山念佛 五、朴淵瀑

第一放送

明日曆

▲同一〇時 地方으로보내는뉴-스

▲同一〇時一〇分 레코-드音樂

▲同九時三〇分 뉴-스解說 白鮫丹 金秋月

▲同九時四〇分(東)時報 뉴-스 氣象通報 라디오메모

▲午後六時(大)歌劇 ▲同六時二五分(東)文化講座 ▲同七時三〇分(東)餘分會 ▲同七時五〇分(東)府縣巡禮

五日 (月)

▲午前七時五〇分 宮城遙拜

▲同七時五一分(東)라디오體操

▲同一〇時三〇分 氣象通報 料理法『떡국이야기』『그밖法』

▲正午(東)時報 오늘아러두실것

▲午後零時五分 피아노獨奏 (레코-드)

▲零時三〇分 뉴-스

▲同一時一五分 主婦時間『食物調理이야기』

▲同六時 뉴-스 趣味紹介

▲同六時 이야기『歌舞伎의어린이』

▲同六時二十五分 어린이新聞

▲同六時三十分 週間行事

▲同七時 뉴-스 天氣豫報

▲同七時三十分 講演 新穿鑿傳 李瑞相

▲同八時 新作이야기『새벽에도 라오다』 朴昌漢

▲同八時三十分 新民謠 一、만산홍마 二、진아리랑 三、베틀歌 四、金剛山打鈴 五、노들江邊 六、老打鈴 沈相健 咸陽成 文壽鳳

▲同九時(城) 立體唱劇『三國演義』解說 韓在東 構成 李秉夫

▲同九時三十分 時局展望

▲同九時四〇分(東) 時報 뉴-스 氣象通報 라디오메모 明日曆

第一放送

▲同一〇時 地方으로보내는뉴-스

▲同一〇時一〇 初步國語講座 (三三)、宋今璇

▲午後〇時五分(城) 管絃樂 ▲同六時(仙) 어야기 ▲同六時二五分(城) 農事試驗巡禮 ▲七時四〇(城)消遣夕 ▲同九時(大)

新春國手對陣譜

小隅飛屯이急務

黑、九突入은時期尙早

觀戰記 權秉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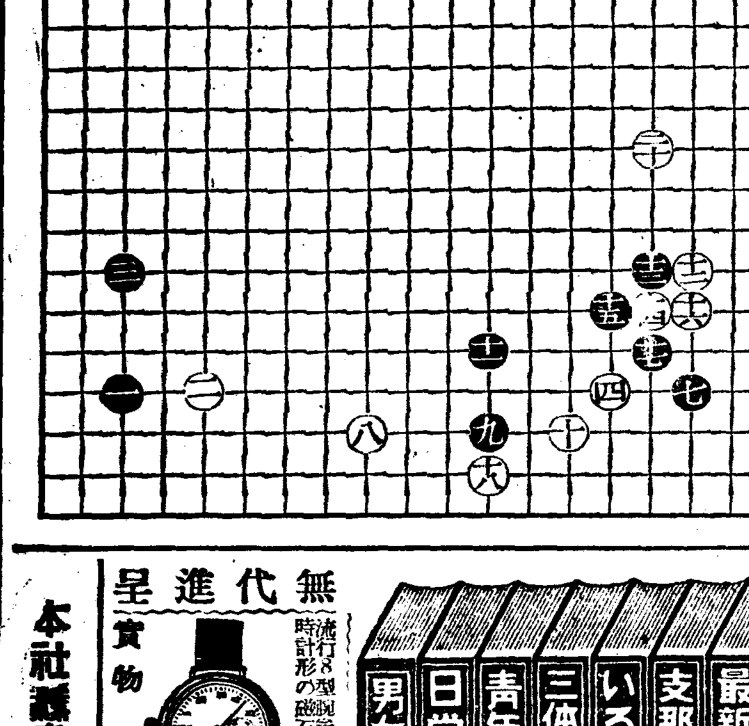
찬바람은 뼈를 찌르듯하데 白熱的 싸움이 버러젓다。黑九가 辛의 一七로 突入함은 아직 期會가 이르듯하다 무슨 理由일까 反駁한다면 小隅의 坂局을 살펴보아라 急務가 아닌가 突然히 미리들어가 兩困馬가 十分여려이다

白一〇파 黑辛의 一五는 優劣을 다투기 어렵다。

白一二는 너무도 無味치안흘가? 차라리 丁의 一三에 本格的으로 飛屯하엿스면 黑은 어찌할수업시 귀에 살기를 꾀할것이고 到底히 湧出은 不敢生意이당 黑一三은 苟且하기는 짝이 업스나 후屈而爲伸이 될런지? 假定하여 丙의 一四로 딱 부처노흐면 參考圖와 가튼 變幻이 잇슬줄로 생각한다 以降 黑一七까지는 恒茶飯이니 더 哭嘆할 맛이 적당 白一八이 조키는 하나 좀더 肥沃하거든 取할 거슬

黑一九는 忽然 깨닷고 二石을 塞水流로 부친다。그러나 丁의 三에 또 同型을 짜노흐니 어떠한 趣向인지는 다음을 기다려보자

白 盧史楚·黑 劉漢鵬 (四日午前)



一 二 三 四 五 六 七 八 九 十 十一 十二 十三 十四 十五 十六 十七 十八 十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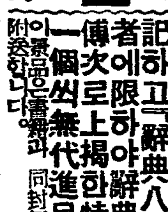
甲 乙 丙 丁 戊 己 庚 辛 壬 癸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2】=

十九 辛의十七
二十 己의十七
二一 辛의十五
二二 丙의十三
二三 丁의十三
二四 丁의十四
二五 戊의十四
二六 丙의十四
二七 丁의十五
二八 辛의十八
二九 丁의十三
三十 丁의十

無代進呈

實物縮寫



流行8型腕時計形の磁石 クローム側 時計指針保證

特別景品 『朝鮮日報』愛讀者라明記하고『辭典八册組』를 註文하시는 者에 限하야 辭典普及大宣傳次로 上揭한 特別大景品을 一個씩 無代進呈함。(景品은 同封包裝 嚴重히하여 附送합니다)

特別景品付 八册辭典 八大亂賣 八册을單壹圓七十錢에 投賣

左의 大辭典八册緊急處分코저 者에 限하야 單 一圓七十錢에 投賣함 八册同時註文 外에 送料 三十錢

破天荒의 大安價 總紙數 三千頁餘

●代金引替는 辭典八册보내라고 葉書로申込하면 第二 一圓七十五錢에 急送함

發行所 東京·中野町小瀧町二四 振替東京 五九九四四 積文堂特賣部

朝鮮信託

貸出業務案內

不動產擔保貸付

有價證券擔保貸付

年賦、定期貸付を低利 迅速に御取扱致します

本店 京城府南大門通二

支店 群山、木浦、釜山、平壤、大邱、咸興

營業案內御申込次第 呈贈

寒い ッ

후군후군 더움고

感氣와結核을防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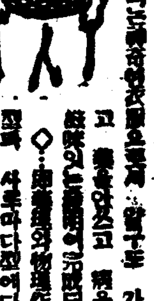
神奇한衣服

科學保溫衣의發明!

◇…아직녀름이後來―그리하 추어지는것과 感冒ニ寒氣는 결 그것으로精保養는 家庭衛生에 가벼고리 發明 가운 뉴-스가잇습니다。

◇…科學保溫衣 寒苦도 病을 고치다는…。

◇…感冒와 物理作用을 축기 斷髮보다 用效잇는 어에 는 사롬마다 절에다 着用해 재 꾸 머게하고 增血을시키고 胃腸을 튼트케하며 林田藤으로 빠 다 잇으며 獨特한 品質에 내…기―가 吸汗 放熱해서 후근 후근



◇…그러므로 아무리도 毛綿은 품는 나지만 科學的保溫衣에 그러 하는것과 시모 新陳代謝를 促進하는 이 衣服입니다。

◇…醫學博士 林醫學博士 小兒科의 梅田醫學博士 婦人科의 醫學博士 高木先生 等에 依하여 推奨 … 敎育 衛生 等에도 有效합니다。

◇…保溫用으로서 老人 病弱兒、虛弱兒、腺病質 乃至 痼疾等에도 絶大한 光明을 줍니다。 人 冷症等에도 絶大한 光明을 줍니다。

◇…또 한번 입으신분들은 노노 다어 선드 뵈 어도 보 이 어 지 고 極寒의 어롱우에 두꺼운 이불보다도 안면 곤란할때 도 발이 시리지안코 戰地의 慰問品으로도 使用해 주 십시오。

特價

大人用(四円)婦人用(四円五十錢) 少年用(四円)ズボン下 大人用(三円五十錢) 少女用(三円) 幼年用(二円五十錢) 科學保溫足袋各一種 送料 內地十四錢 外地十九錢 (七十錢) (七十錢)

說明書無代進呈

都小賣店各位에 綿毛製品統制下에 本品의 發明은 業界에 一大센세이슌을 捲起하고잇다 速히 申込하시고 有利한 契約을하기바랍니다。 製品豐富。

大阪市北區堂心町二ノ三三 發賣元 日本科學衣研究所 振替大阪一七三八番

新案登錄 科學保溫衣

本社鎭島支局 電本②二八八六番